

# 제 96 회

2月 8日,

- ... 본회가 주최한 제96 ... ○
- ... 회 발명교실이 지난 ... ○
- ... 2월 8일 발명장려관 ... ○
- ... 연구실에서 개최됐다 ... ○
- ... 매월 둘째 토요일 오 ... ○
- ... 후 1시 30분에 개최 ... ○
- ... 되는 발명교실은 이 ... ○
- ... 달에도 1백여 명이 ... ○
- ... 참석하여 성황을 이 ... ○
- ... 루었다. 이날 발명교 ... ○
- ... 실에서는 태훈산업 ... ○



## 만능녹즙기 발명가

### 태훈산업 김종길 사장

2년간의 투병생활과 그 체험을 발판으로 만능녹즙기인 그린파워를 발명한 김종길 사장.

그의 발명품인 만능녹즙기는 '91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했고 그 성능의 우수성이 증명되어 간경화를 비롯한 만성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김사장이 녹즙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생식요법을 쓰면서부터였다.

강원도 강릉에서 농장 등을 경영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김사장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만성감염과 신장병도 같이 얻게 되었다. 원인은 과로와 과음.

2년동안 투병생활을 하며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간경화에 이르렀다.

옥수수 수염, 호박 등등의 민간요법, 한방치료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녹즙을 이용한 자연식요법을 시도해 보았고 그 효능을 체험한 김사장은 본격적으로 녹즙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족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당시에 나

와 있던 녹즙기는 모두 원심분리식 녹즙기로, 영양소 파괴가 많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절구에 찼어서 복용해야만 했다.

「힘겹게 절구질을 하는 가족들을 보며 제 자신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절구질을 하며 투병생활을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녹즙기를 개발하여 새희망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녹즙으로 병을 치료한 김사장은 그 길로 녹즙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녹즙기 130여 개를 수집하여 원리와 효능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데 그 원리는 모두 일본당 9,000~12,

# 發明教室

## 成功事例 등發表

- ...김중길 사장의 성공...○
- ...사례 발표에 이어 金...○
- ...寬衡 본회 상근 이사...○
- ...의 「발명의 창출과...○
- ...사업」에 대한 강의와...○
- ...洪載日 변리사의 「산...○
- ...업재산권제도」에 대...○
- ...한 강의와 토론이 있...○
- ...었다, 발명기의 성공...○
- ...사례를 간추려 소개...○
- ...한다. (柳泰洙記)...○



000 회전의 원심분리식이었다.

일본당 140회전을 넘지 않으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일본 학술지를 보았던 김사장은 절구와 맷돌의 원리를 이용한 특수쌍기어를 개발하여 녹즙기를 완성시켰다.

「생식요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뿌리끝에서 줄기 끝까지 모두 먹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약이나 중금속이 없는 싱싱한 야채를 먹어야 되지요.」

만능녹즙기의 탁월한 효과는 바로 농약과 중금속을 제거해 주는 기능을 보면 알 수 있다.

야채와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소는 농약과 중금속에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원심분리식 착즙기로 짜낸 녹즙은 중금속을 그대로 간직하게 된다.

그러나 김사장의 녹즙기는 섬유소의 중금속과의 친화성

을 이용하여 중금속을 완벽에 가깝게 걸러낸다.

야채의 섬유소는 중금속과는 결합하지만 순수한 물분자와는 흡착하지 않기 때문에 맷돌의 놀리짜는 방식으로 순수한 녹즙은 빼내고 농약과 중금속은 섬유소와 결합시켜 버리는 것이다.

KITI(한국생활용품 검사소)의 두 차례에 걸친 실험으로 만능녹즙기의 중금속 제거 기능을 인정받았지만 그것은 6번의 실패와 그전에 벌어들였던 돈을 모조리 개발비로 날려버리는 아픈 과정을 거친 결과인 것이다.

또한 제작원가가 백만원 이상 되는데도 고작 24만원에 팔았던 적도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전날에는 이곳저곳으로 돈을 꾸러 다니기도 했지만 현재는 월매출액이 3억이나 될 정도로 건실한 중소기업체의 위치에 올려놓은

김사장.

「하지만 아직도 세계는 큰 벽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녹즙의 효능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홍보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녹즙을 마신 후 설사를 하면 부작용이 아니냐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며 김사장은 생애 처음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한다.

일반 녹즙기로 짜기 힘든 솔잎, 돛나물, 선삼초 등 모든 야채와 과일의 즙을 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씨앗이나 껍질의 미세한 영양까지 신속하게 짜주는 만능녹즙기의 발명가 김사장.

그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농산물로 먹고 마시고 치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